임시이사회 체제 6개월에도 정상화 '요원'

나눔의집 정상화 향방은?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한계 뚜렷한 임시이사회
근본적 개선방안은 없어
내부갈등 고착화도 문제
사회적신뢰 여전히 바닥
후원금의 90% 급감수준
정식이사회 전환 요구도



나눔의집 임시이사회를 앞두고 회의자료를 검토하는 이사들.

성남 봉국사 주지 혜일 스님이 사회복지법인 나눔의집 상임이사 직무대행으로 선출되면서, 사태 이후 1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한 정상화에 새로운 변화가 일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5월 운영논란으로 촉발된 이후 시설장과 법인 사무국장 등 새로운 운영진 체제로 전환해 감사 지적사항 개선에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이에 불응하는 일부 내부직원들로 인한 갈등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임시이사회 체제의 한계도 정상화 과정이 더딘 이유로 지적된다.

나눔의집은 올 1월부터 임시이사회 체제로 운영 중이다. 지난해 경기도가 정상화를 명분으로 스님이사 5명을 해임한데 따른 것이다. 이후 이사 스님들에 대한 횡령 등 각종 의혹들이 경찰조사 결과 모두 무혐의로 밝혀졌지만, 경기도가 해임조치를 강행하면서 현재 '해임명령 무효 소송'과 '직무집행정지 취소 소송' 등 부당성을 가리기 위한 법정 소송이 진행 중이다.

임시이사회 체제로 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시설과 법인 운영 정상화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일부 내부직원들의 전횡 의혹 및 지시불이행으로 인한 내부갈등이다. 대표적으로 역사관 직원과 법인 사무직원을 비롯한 일부 내부직원들은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여전히 생활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광주시와 경기도 감사에서 개선사항으로 지적됐던 시설과 법인의 공간 · 인적 분리에 위배될 뿐 아니라,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할머니들의 거주공간에 너무 많은 인원이 근무한다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고령인 할머니들의 외출과 병원진료 등이 사전보고 없이 일부 직원들의 판단에 따라 임의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 할머니들이 워낙 고령인만큼 자칫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관 상황도 다르지 않다. 대표이사 해임으로 역사관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한 직원이 공문서상 자신의 직함을 변경하고 임의로 관장 직인을 사용하거나, 운영진의 결정을 무시한 채 계약기간이 종료된 직원의 출근을 지시하는 등 전횡 의혹도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현재 논란을 야기한 직원들은 모두 나눔의집 운영논란을 처음 제기했던 내부제보자들로 확인돼, 운영상 문제를 지적했던 당사자들이 지자체 감사 이후에는 운영진의 개선노력을 되레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나온다.

내부문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대사회적 신뢰 회복은 요원하다. 나눔의집 사태가 처음 불거진 지난해 5월을 기준으로, 후원금 규모는 월 1억6000만원에서 1400만원대로 90% 이상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올해까지 월평균 1800만원 수준으로 전혀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다.

조영군 법인 사무국장은 "이 같은 상황이 임시이사들에게 보고됐고 직접 감사 후 감사보고도 진행됐지만 여전히 변화는 없다"며 "법인과 시설 운영 정상화를 위해 운영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 조치없이 현재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방관한다면 사회적 신뢰 회복은 물론, 정상적인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임시이사회 체제에서 타개책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많다. 권한이 제한적인 까닭에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의결만 할뿐 그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사태 이후 격화된 내부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지만, 임시이사회에서는 사실상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다. 임시이사회는 현재 추가적인 갈등을 만들지 않는 선에서 할머니 케어와 관련한 조치 위주로 업무를 수행키로 협의한 상태다.

대표이사 직무대행인 이찬진 변호사는 "임시이사회는 할머니들은 중심으로 모든 일을 처리한다는 원칙을 갖고 내부갈등이 심화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나눔의집과 관련한 소송은 10건 가량이다. 일부 내부직원과의 크고 작은 법적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사 스님 5명에 대한 경기도 해임명령의 부당성을 다투는 소송이 두건 진행중이다. 이와 관련 7월 15일 '직무집행정지 취소 소송'의 1차 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사태 1년을 넘기면서 정상화 기로에 선 나눔의집이 타개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마곡사 차기 주지후보에 원경 · 선일 · 혜룡 스님

마곡사선관위, 7월 7일 후보등록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 차기 주지 후보에 현 주지 원경 스님과 태고사 주지 선일 스님, 전 백운암 주지 혜룡 스님이 입후보했다.

마곡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탄공)가 차기 주지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앞두고 7월 5일부터 7일까지 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원경 스님과 선일 스님, 혜룡 스님이 차기주지 후보로 접수했다. 등록 순서에 따라 원경 스님이 기호 1번, 선일 스님이 기호 2번, 혜룡 스님은 기호 3번이 배정됐다.


원경 스님


선일 스님


혜룡 스님

원경 스님은 진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8년 운경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1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종립학교관리위원, 성불사 주지, 제13 · 14 · 15대 중앙종회의원 등을 지냈다. 현재 마곡사 주지를 맡고 있다.

선일 스님은 진철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6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0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16대 종회의원을 역임했으며 용암사, 만일사, 광덕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혜룡 스님은 정영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2년 청하 스님의 계사로 사미계를, 1998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22안거를 성만했으며 정혜선원 대표 및 백운암 주지를 역임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월 12일 회의를 열고 입후보자에 대한 자격심사와 산중총회 구성원 명부를 확정한다. 마곡사 주지 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는 7월 15일 오후 1시 마곡사 관음전에서 진행되며, 이날 차기주지 후보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송지희 기자

불자들에게 포교 방향 묻는다

조계종 포교원, 7월 부터 포교종책 개발 설문시행

조계종 포교원(원장 범해)이 제8대 포교원 집행부의 종책 수립을 위해 7월부터 포교종책 개발을 위한 설문조사를 시행한다.

포교종책 설문지는 ①포교종책에 대한 평가 ②'포교' 이미지 조사, ③향후 포교원에서 집중해야 할 계층과 직능 ④포교종책 수립의 주안점 ⑤포교원에서 개발 예정인 중점 사업의 우선순위 ⑥포교원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제도 개선 방향 ⑦포교단체 및 신도단체 활성화를 위한 중점사항 ⑧어린이청소년 포교 활성화를 위한 제언 ⑨포교예산의 확충방안 ⑩포교의 미래를 위해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분야 등 총 3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포교종책 설문조사는 교구본사 주지 스님, 중앙종회의원 스님,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 전법중심도량 주지 스님, 사찰 불교대학 학장 스님, 교구본사 포교국장 스님, 포교단체장, 신도단체장, 중앙종무기관 차팀장 등 5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포교원 측은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부대중의 의견을 전문가들과 세부검토를 진행하고, 2022년초 제8대 포교원 포교종책으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불자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2기 문화창달위원 위촉

7월 16일 임기 시작 각분야 전문가 15명 위원장에 원명 스님


조계종 백년대계본부가 2기 문화창달위원회를 구성하고 7월 7일 위촉식을 진행했다.

불교전통문화의 계승 및 문화에 기반한 불교발전 방안을 모색할 제2기 문화창달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한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본부장 정념)가 2기 문화창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7월 7일 위촉식을 진행했다. 2기 문화창달위원 임기는 7월 16일부터 2년이며,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장에는 1기 위원장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이 연임됐다.

2기 문화창달위원회는 원명 스님을 비롯해 문화부장 성공 스님, 백년대계본부 사무총장 신공 스님, 불교사회연구소장 원철 스님, 불교의례문화연구소장 법안 스님,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 보존회장 경암 스님, 광흥사 주지 범종 스님, 불교지화장엄전승회장 정명 스님, 금당사찰음식문화원장 대안 스님, 대운사 주지 주석 스님, 강선정 화엄사 성보박물관 부관장, 강소연 중앙승가대 교수, 구미래 불교민속연구소장, 김호석 화백, 이종만 좋은벗풍경소리 대표 등 각 분야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다.

원행 스님은 이날 성보문화재와 불교문화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며 남다른 당부의 말을 전했다. 스님은 "문화창달위원들은 각 분야에서 가장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로 모셨다"며 "국가와 민족, 종단을 위해 불교계가 불교전통 계승 및 문화 창달에 어떤 방식과 방향성으로 기여하고 매진할지를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스님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반환된 사리를 교구본사로 이운했고 모든 지역에서 생산되는 석자재를 사용해 특별한 의미를 지닌 사리탑 건립을 추진중"이라며 "이처럼 전통불교문화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필요한 분야가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문화창달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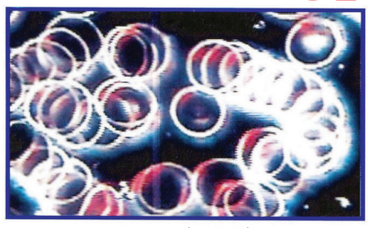
위원장 원명 스님은 "1기 위원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한 부분이 아쉽고 죄송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2기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더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겠다. 종단 문화부와 협력해 주요 과제나 사안을 점검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문화창달위원회는 지난 2019년 7월 출범 이후, 좌담회와 사찰순례, 대중강연 휴먼라이브러리, 청년아트마켓 세존예장 등 문화 관련 사업을 진행한 바 있으며, 연구 사업으로 '문화비전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 중이다.

백년대계본부는 "2기 문화창달위원회 전체회의를 빠른 시일 내 소집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특히 급변하는 시대에 대응하는 불교계의 문화정책 전반에 대한 연구, 종단 내 불교문화 전문가와 활동가의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불교 전통문화 계승과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 등 관련 사업과 연구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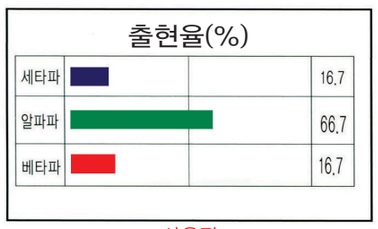
세정제인 비누가 감기, 몸살, 코막힘, 비염, 축농증 예방과 아토피, 무좀을 없애주며
혈액을 맑게 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비누!!

생혈액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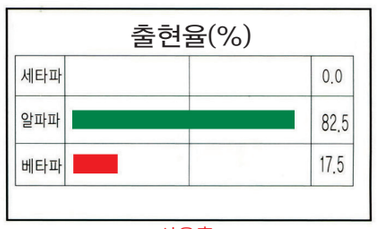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 10분이내)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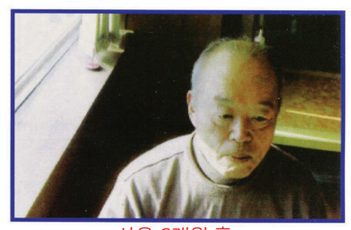


사용후

알파파 (8~14Hz)
명상 같은 편안한 상태에서 나타나며 스트레스 해소 및 집중력 향상에 도움, 근육이 이완되고 마음이 편안하면서도 의 식이 집중되고 있는 상태

검버섯 제거 현상


사용전


사용 6개월 후

폐렴균, 포도상구균, 대장균 99.9% 정균 감소 기능을 지닌 비누

체험사례
◎ 개발자 41년 3월생 남자 본인은 BLOOD MATE®를 90년대 말에 개발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20여년간 감기나 몸살로 약을 먹어본 적도, 드러누워 본 적도 없이 토,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 BLOOD MATE®를 사용하기 전에는 안경을 써야 신문을 볼 수 있었는데 현재는 안경을 쓰지 않고 신문을 보고 있으며 눈동자에 힘이 생기는 것을 느낍니다.
◎ BLOOD MATE®를 설명서대로 사용하고 누워있으면 세포 움직임(혈액순환)이 손바닥에서 스물스물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적극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혈액을 맑게 하여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므로 어깨, 목, 허리 통증을 없애주며, 탈모예방과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때를 일부러 밀지 않고 비누거품으로 마사지만 해주면 깨끗이 세정되는 특징과 피부가 투명하고 매끄러우며 윤이 나므로 스킨, 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피부보습효과 가 뛰어납니다.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냄새, 노인냄새 제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게르마늄 허브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BLOOD MATE® 비누 : 120g 12개 300,000원
ORAL MATE® 치약 : 120g 3개 63,000원
363,000원 ➡ 100,000원

㈜에이스삼강 02)353-9692 , 010-2791-3696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삼강